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일곱춧대세워 세계 선교센터가 될 터

### 새 예배당 현장 탐방하기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왕상 6:7)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현장에는 하루에도 이백여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나 각기 흩어져 일하는 이들의 모습속에서 평화를 느낀다. 설비, 내장 방수, 샷타, 전기, 도장, 미장, 조적, 목공, 엘리베이터 설치, 알루미늄 딜 등 다양한 공사가 순서를 따라 서로 물리고 물려주는 작업 공정 속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조용히 그리고 원만하게 진행된다.

새벽 6시 30분부터 서로 아침 인사를 나누며 시작되는 공사현장의 사그 없기를 위해 새벽 기도회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을 붙인다. 인력과 자재 공급 그리고 정교한 기술과 이것들을 뒷받침한 물질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벽돌이 쌓아지기를 얼마나 힘쓰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일층 웨스트 민스터 홀과 분당(2, 3, 4층)에는 긴 의자가 들어가도록 주문했다. 본당의 강대상은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교회 행사가 있을 경우엔 강대상이 강단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강단을 바라보고 우측에는 150

석의 찬양대석이, 그리고 좌측에는 핸드 벨석이 준비 된다. 3층 현관에는 9개의 개인 기도실이 있고 4층 현관쪽에 있는 유아부실에는 놀이기구가 설치된 유아들의 놀이방이 꾸며지며 5층 교육관과 찬양연습실에는 긴 의자가 주로 배치 되지만 6층과 7층에는 원탁 테이블들이 놓여져 분반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8층 식당은 스카이라운지로 아름다운 정경을 내려다 보며 식사할 수 있고 비전홀을 꾸며 각종 회의실로도 사용된다. 옥탑층에까지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어 옥탑층 파고라를 형성하여 안식처를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선물로 6천평 크기의 아름다운 공원과 작은 동산을 준비해 주셨다. 단풍이 짙게 물드려진 공원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케 될터이니 생각만 해도 감사할 뿐이다. 전면에 여섯개의 춧대가 세워지고 종탑에 또 하나의 춧대가 세워져 세계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춧대 교회로 태어날 서울교회 건축현장은 온 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 새 예배당 입당 D-64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올 수 있었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험한 산, 풍랑이는 바다를 통과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 남은 길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건기만 해도 새 예배당입당은 자동케이스입니다.

###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청되는 2000사명자 대회

우리교회는 해마다 교회설립 50일전부터 사명자대회를 개최하여 기도와 전도 그리고 말씀찬치를 9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8일(주일) 찬양예배시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온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속에, 은혜중에 진행 되고 있다.

사명자대회 임원 및 실행위원들은 새벽기도회 후 주 2회 별도의 모임을 통하여 사명자대회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계속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11월 13일부터 25일까지 있을 특별새벽기도회와 11월 19일에 있을 태신자초청찬치에 초점을 맞추어 풍성한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70인 전도대와 주력부대가 공동으로 노방전도 및 축호전도를 실시하여 새신자를 데려오고 있고 24시간 연속기도회는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이 각자의 기도시간을 적어놓고 7가지 기도제목에 따라 계속 기도하고 있다.

## 오늘 교구별로 노방전도

### I · II · III부 예배후 교회 주변을 대상으로

2000사명자대회 행진이 오늘로 셋째주에 접어들었다. 50일 연속기도회, 금요기도회 등 기도운동과 70인 전도대 훈련, 태신자 전도와 초청의 전도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I, II, III부 예배후 전 교인이 교구별로 나누어 교회 근방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펴게 된다.

2000 사명자대회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민족 75%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는 운동으로 오늘은 예배 후 각 교구별로 모여 노방전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전도대상 지역은 교회 인근으로 영동시장에서 삼정호텔 부근까지 편의상 모두 6개구역으로 구분했다. 이 6개 지역을 우리교회 12교구에서 6개 전도단으로 나누어 각기 맡아 노방전도에 나서게 된다. 각 교구에 소속된 교인들은 예배 후 전도대 별로 먼저 교회앞 지정된 집결지에 모여 발대기도를 드린후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각각 정해진 구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도 방법은 전도지를 활용하거나 이밖에 각자의 방법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도하면 된다. 각 교구별 담당 구역과 모이는 장소는 옆의 도표와 같다. 주간에 노방전도, 축호전도, 잃은양 찾기 운동이 계속 된다.

구분	교 구	전도대상지역	집결지
제1전도대	1, 2교구	제일은행-논현역	교회정문앞 좌측주차장
제2전도대	3, 4교구	제일은행-제일생명사거리	교회정문앞 우측주차장
제3전도대	5, 6교구	교회-논현역	교회정문앞
제4전도대	7, 8교구	교회-제일생명사거리	김정어패션앞
제5전도대	9, 10교구	논현역-신사역쪽	쌍뚜 주차장
제6전도대	11, 12교구	제일생명사거리-강남역쪽	엘지전자앞

# 다락방 제도의 성경적 의미

성경 : 출애굽기 18 : 13 ~ 27



이종운 목사

\*\*\*

다락방 제도는 '속회'라는 명칭으로 감리교에서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영어로 'class'라고 하는 속회는 감리교에서 기금 마련을 위해 조직한 것입니다. 보통 10가정을 한 단위로 하여 한 가정에서 2패니를 헌금하도록 하여 감리교 구제활동 등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만든 것이 속회의 본래 취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락방 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없으나 1894년에 선교사가 들어온 이후에 교역자가 너무 부족하게 되자 기독교문을 발행하여 신문에 성경공부를 실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평신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구역 예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34년 한국선교 50주년을 맞아 로드 선교사가 미국에 보고한 선교 보고서 가운데 한국 신도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다락방 예배는 1934년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락방 예배는 'small group movement'로서 모여서 나눔과 만남과 섬김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 1. 나눔

다락방 운동은 작은 그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효과적으로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는 것은 힘을 더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나누는 방법은 주거별, 나이별, 직업별로 혹은 취미나 은사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와 같은 소그룹이 많아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구조를 보면 교회 안에 small group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이 그룹 가운데 어떤 그룹에든지 소속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락방 제도는 교회의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에 속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활력 있고 생동감 있게 부흥시키려면 소그룹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소그룹 운동의 효시는 본문 출애굽기 18:13 이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제도를 두어 일을 나누어 하라는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한 사람이 열명 이상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0명 남짓한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열 명을 단위로 하여 일을 하면 일이 수월하고 지혜롭게 처리됩니다.

모세는 역량과 인내심이 비상했습니다. 그는 대단한 리더였고 특히 그의 헌신과 봉사심은 비범했습니다. 그는 하루종일 백성들의 어려움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7, 18절을 보면 이드로는 그 일들이 모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중하므로 사람을 세워 일을 나누어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드로의 충고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복잡한 일들을 분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일은 결코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각 교회의 지체이며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한 사람이 백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 보다 백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백 사람을 위해 일할 것이 아니라 백 사람을 모두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19절에서 이드로는 일을 나누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다", 이 말씀은 번역을 조금 달리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장이 성경공부를 했다고 해서 다락방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목회 할 수 없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건들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한편 백성들에게도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20절). 백성들이 무지하게 되면 옹고 그룹을 판단하지 못하여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일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말씀 공부를 바르게 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락방 예배에서도 다락방장이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맡기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 덕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일에 진실하며, 청렴결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직임을 허락하십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따라 나눔의 원리를 잘 활용한 사람입니다.

## 2. 만남

나눔은 만남의 기회를 만듭니다. 피상적인 만남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그 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인사할 사람도 없다면 그 모임은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벳새다 광야에서 오 천명을 먹이실 때 무리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작은 그룹으로 오 천명을 나누어 먹게 하셨다는 기록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나눔으로 인해 우리는 피차가 서로 잘 알게 되고 친근하게 됩니다.

만남의 자리는 바로 다락방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차 한 잔을 놓고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갖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스라가 등단한 첫 번 사경회에서도 만남을 갖기 위해 나눔의 성경공부가 있었습니다.

## 3. 섬김

나눔은 만남을 위한 것이고 만남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6:9에 의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각 가문과 족속과 지파들이 의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락방 모임은 섬기는 일들을 피차에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락방 모임의 모델은 이와 같이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가깝게 만나고 만나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 "제자의 도" 강해 시리즈가 10회 진행되는 동안 "이사야서 강해"는 쉬게 됩니다.



# 감사의 순종으로 증성이었습니다

최정자 권사(9교구)

작년 11월 제 2권사 회장직 발표 후 주위 여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축하한다고들 말씀을 받으며, 무척이나 당황하고 내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또 교회 봉사나 교회 여러일에 대한 경험도 없었기에 어려운 중책을 어떻게 감당할까 기도하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일을 은혜와 감사로 최선을 다해 보리라 다짐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권사회의 진행을 하다보니 더욱 저의 부족함을 새삼 느꼈는데 우리 권사회의 이, 김, 박 권사님 등 많은 권사님들께서 여러모로 기도와 많은 도움을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찬식 준비중에 띄우는 일, 포도주 따르는 일 등 우리손으로 하나님일 봉사하면서 많은 권사님들의 정말 정성스런 훌륭한 봉사 정신을 배웠고 목회자 세미나의 김밥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손길과 깔끔하고 맛있게 싸시는 프로급의 솜씨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또한 남자 집사님들이 든든하게 도와주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찬양부서에서 시행하는 찬양대회에서 우리

가 불러 보지 못한 찬양곡이 선정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못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였으나 이 권사님의 상냥스러운 음성으로 "하면되요 좋아요" 하시길래 따라서 연습했을 때, 하나님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뉘워도 여전히 다함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 사랑은 한결 같으사 날마다 주시니 나 그의 사랑 늘 간직하겠네. 만인의 큰 예수여 믿는 이 다같이 주 사랑하는 맘으로 늘 순종합니다." 기도회 늦은 밤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음깊이 주님의 이름답고 깊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른 찬양대회는 정말 기쁘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저녁이었습니다. 제 2 권사회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주위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주신 사랑, 정말 믿음의 사랑이 어떤것인지 몸소 체험하면서 아쉬움도 많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하나님 교회일 감당 못한 나의 모습과 권사회 회의때에 가끔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저의 기도 부족함 때문인 것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프고 죄송할 뿐입니다. 곧 새생전 시대가 다가오는데 주님의 성전 이름답게 완공되는 그날까지 우리 제 2 권사회의 더욱 많은 기도와 전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 충성 봉사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약하고 병든자를 도우면서

하정자 권사(7교구)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나이 먹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나이값 하기가 힘들고 또 하나는 늙음을 받아들여가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세상 만사가 날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 생명을 담고 있는 몸이 무너져 갈 때의 두려움과 좌절감과 허탈함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병을 앓는 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하여 늙음을 기다려 주지도 않고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질병이 올 수도 있다. 또 늙어서 노쇠 현상으로 몸이 약해진다. 다행히 치료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

저는 그런 자리에서 환자 "도우미"로, 또는 호스피스로 일을 하고 있다.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 시키는 구원병이다. 다행히 믿음을 갖게 하고, 정성껏 기도하며 도와 치료가 되어 퇴원할 때는 보람도 느낀다.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천국이 있음을 전해주고 영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전해 준다.

그러나 또 치료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죽음을 받아들여지게 하고 준비하게 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게 하고,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면 풀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서하게 하고, 용서받게 하고... 등,

마음을 열고 많은 대화를 나눈다. 힘들어 하는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평안 할 수 있도록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린다. 어떤 때는 가족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내 행동 하나, 발자국 소리 하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 새로워진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임속해진다. 몸이 가눌 수 없을 정도에는 무의식인 것 같아도 귀는 제일 마지막까지 열려서 듣는다고 한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해야 한다. 가족이 없을 때는 혼자서 천국환송(이별)를 드리기도 한다. 소망도, 평안도 그렇게 회복된다. 이쯤을 참아 내도록,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고는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는 동안 힘들고 피로 하지만 주님께 감사한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해야만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날 그날 불화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원하고 밝게 살아가고자 한다.

병들지 않더라도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겸허한 자세로 주님께로 순종하고 가치있는 인생의 길로 인도 하시기를 늘 기도한다. 한 인간으로서 내 형편과 처지대로 남을 도울 수 있고 언제나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 드린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참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 일을 하고 있다.

# 당신은 살아 계시다고

신동기 권사(3교구)

어느 날  
말하리  
말 할 수 있으리

꿈속에 감추었던  
하늘 한 조각  
이 땅에 떨어지고

무릎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허리로 동이더니  
이름 살된 속살이 열리어  
새 살이 한석으로 돌아나고

마지막 피 한 방울  
기도를 세우며  
짓겨진 살 조각  
지붕을 덮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종말은 세워지고  
악명이 터지는 날  
종이 울린다

어느 날  
말하리  
말 할 수 있으리

눈부시게 흰 깃을 운수리에 펴는  
찬란한 새벽

피와 땀으로 불을 켜  
적마다 오색 영광한 눈물꽃등을  
겹겹이 추켜들고  
순결한 신부들이  
하얗게 쏟아지는  
천상의 꽃길

축복!  
축복!  
하늘이여 외치라  
땅이여 들으라  
문이 열리고 영광의 축복이 터진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땅끝에서 땅끝까지  
나  
말하리  
말 할 수 있으리  
당신은 살아 계시다고...





# 지금오세요, 시온으로

허숙집사(11교구)

새성전은 요술집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교회 교인은 요즘 '새성전으로 가면'이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사는 듯 합니다. 새성전은 결코 요술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와 헌신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지는 눈물의 집입니다. 새성전에 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업그레йд 될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새성전에 가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줄 압니다.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전도도 전보다 더욱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했던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사탄 바이러스는 성령의 뜨거운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시온 찬양대, 수요일 저녁입니다. 새성전에 가면 하려고 했던 분들은 지금 오시기 바랍니다.

민음이 아주 좋은 분들은 비오는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민음이 업그레йд 되시기를 원한다면 시온 찬양대로 오세요. 그러면 비오는 날이든 태풍이 부는 날이든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시온 찬양대는 이미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새성전 입당 축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음악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시온 찬양대 모든 대원들은 밤늦도록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기쁨을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나가기 싫은 시온 찬양대, 우리는 공명이 아주 잘 되는 새성전에서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 감사의 계절 가을

김범식(청년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좋아하지 않는 계절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가을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을 하늘은 참 높고 파란 것이 모든 것을 잊고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면 따위는 구름 조각 하나라도 애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 맑고 깨끗한 하늘에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저 아름다운 하늘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물감과 어떤 종이에도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산에 열려있는 단풍들, 낙엽이 쌓여있는 길을 밟을 수 있는 여유, 아침에 숨을 들이마실 때마

다 볼 수 있는 흙지 않은 입김, 니들이 하기에, 공부 하기에 좋은 날씨. 이런 것들 외에도 가을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풍성한 과일이나 곡식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시원하고 먹음직스러운 배와 보기 좋게 익은 사과, 싹이 나면서도 달콤한 귤. 그 밖의 다른 햇과일들과 햇곡식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여름의 그 따가운 태양을 여름 내내 간직한 채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을은 항상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을 느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감사의 기도와 경배의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또 이런 좋은 가을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와 같이 즐겁게 누릴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새예배당 건축 현장에서**

## 한 사람의 손길이 아쉽습니다

금년 12월 25일 입당을 앞둔 새예배당 건축현장은 오정수 건축위원장을 필두로 매일 200여명의 인부들과 건축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더 좋은 예배당을 약속된 날까지 완공하기 위해 비상작전에 돌입했다. 지난 14일에는 청년부에서 2층 청소 및 정리를 자원하여 큰 힘이 되었고 이어 16일에는 이성득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역자들이 목회자세미나를 마치고 막바로 현장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정리 작업을 도우며 수고하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누었다. 매일 서니분의 성도들이 몸을 내어 드고는 있으나 쓰어지는 쓰레기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만도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우리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청되고 있다.

하루에 두어 시간이라도 짬을 내어 새예배당 건축 현장에서 함께 마음을 흘림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 기뻐하시는 역사에 동참하고 선교인과 주민들에게 공익한 금반 성탄절에 입당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쓰게해보았으면 한다. 한 사람의 손길이 아쉬울 때에 간편한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동정음**

☎ 이종윤 목사는 24일(화) 오후 4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순교자 기념관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26일(목)에는 군선교 연합회 정기 이사회에 참여한다.

**☎ 이정은 목사 방송섬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이종호집사, 최무순 권사 가정

**☎ 건축현장 방문팀**  
: 마리아 - 23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살롬경로대학 · 서울성경대학 · 목회자신학세미나위해
3.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4. 사명자대회를 통한 풍성한 열매 맺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한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